北 "군사적 대응 취하겠다"

남측 '긴장조성 중단·불가침 합의 준수' 통지문 수용 거부

북한은 3일 북측의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불가침 합의 준수'를 재천명한 전날 남측의 전화통지문의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남측의 어제 (답신 전통문을 통해 밝힌)입장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해당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측의 이날 전통문은 경의선 출입관리사무소(CIQ)에 설치된 군 상황실을 경유해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육군 소장에게 전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군사적 대응조치'와 관련, 지난달 29일 북측이 전통문에 언급한 대로 군 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에 재답신 전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조선 군 당국은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이 중지되고 통행차단 조치가 취해지게 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MDL 통행차단 조치는 물론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을 중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위력시위 또는 동해안에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추가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군당국은 이런 주장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군당국은 북측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특이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선제 타격 발언은 당연"

남북 전략적 차원 대화 말고 가슴을 열고 대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 기류와 관련, "김 합참의장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당연히 한 것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일반적인 대답"이라며 "다른 의미가 없는 대답을 갖고 그러는(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북한이 요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있었으나 저는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는 오히려 더 남북이 진정으로 대화를 하자는 관점에서, 대남전략이나 대북전략과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대남 위협 이후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북한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북한측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데 민족끼리라는 구호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을 열어도 진정성이 없으면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새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자는 관점이고 그러려면 북한도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과거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대로 있고 북한만 자세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모두 세계 조류에 맞게 대화를 해가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다시 대화를 통해 한단계 차원 높은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영권 세습·비자금 의혹 풀릴까

■ 이건희 회장 오늘 소환 … 특검 수사 막바지

13년만에 수사기관 출석 … 사법처리 여부 주목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오후 2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1995년 대검 중수부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후로 13년만이며,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인 에버랜드 사건이 고발된 때부터는 7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이 회장을 전격 소환했다는 것은 비자금과 경영권 세습, 정·관계 로비 등 주요 의혹 분야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론과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이건희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삼성측에 통보를 했다"며 "이 회장도 정해진 시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특검보는 또 "그동안 수사해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회장을 상대로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 상태에 따라서 재소환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며 시간이 모자라면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처리나 구속 여부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이 회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사를 한 뒤 기존의 수사내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 정·관계 뇌물제공 등 모든 의혹들과 관련해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의 의혹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을 비롯해 계열사 지분이 이재용 전무에게 저가에 인수돼 그룹 지배권이 부당하게 세습됐다는 의혹의 경우, 이번 수사의 핵심사안이라고 보고 이 회장이 그룹 전략기획실을 시켜 지분 거래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빠르면 하반기부터 무비자 美 입국

李대통령 訪美 중 한-미 비자 면제 협약 체결될 듯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과 사업 목적 등으로 3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고위관계자는 2일(현지 시각)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를 이달 중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힐러리 기사 회생?

경선지 6곳 중 4곳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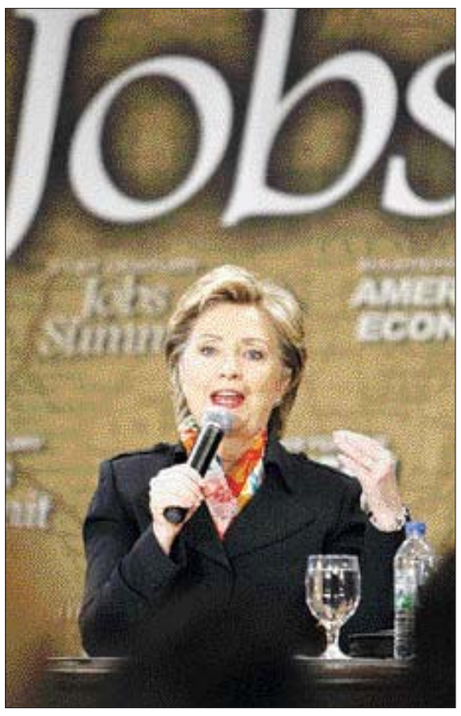
오바마 노스 캐롤라이나서만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내달 말까지 예정된 6개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가운데 4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2일(현지 시각) 드러났다. 반면에 지금까지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노스 캐롤라이나주 (대의원수 134명) 한 곳에서만 앞서고 있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조기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힐러리는 오는 22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펜실베이니아주(대의원수 188명)를 비롯해 인디애나주(5월6일), 웨스트 버지니아주(5월13일), 켄터키주(5월20일) 등에서 오바마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라스무센리포트가 지난 달 31일 조사한 결과 힐러리가 오바마를 47%대 42%로 앞섰고, '서베이USA'의 지난 달 29~31일 조사에서는 53%대 41%로 힐러리의 지지도가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또 서베이USA가 지난 달 29~31일 인디애나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러리가 52%의 지지를 얻어 43% 지지에 그친 오바마를 눌렀고, 지난 달 28~30일 켄터키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힐러리가 2대1 정도의 비율로 오바마를 크게 리드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2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기공 직업훈련소에서 유세중 직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아메리칸리서치그룹의 지난 달 31일 조사에서 오바마가 힐러리를 51%대 38%로 앞섰고, 지난 달 29~30일 실시된 '퍼브릭 폴리시 폴링'의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가 54%, 힐러리가 36%로 오바마가 힐러리를 크게 앞질렀다. /연합뉴스

"흡연자 폐암여부 유전자에 달렸다"

니코틴 수용체 유전자 변이 탓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무사한 이유는 유전자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크리스토퍼 아모스 박사, 국제암연구소(IARC)의 폴 브레넌 박사, 아이슬란드 디코드 지네틱스(deCode Genetics) 사장 카리 스테판손 박사는 각각 별도의 연구논문을 통해 흡연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제15번 염색체에 있는 3개 니코틴수용체 유전자 변이때문이라고 밝혔다.

3개 연구팀은 모두 니코틴수용체 유전자의 변이형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담배를 더 피우고 담배를 끊기가 더 어려우며 폐암에 걸릴 위험도 물론 높다고 말했다.

부모 양쪽으로 부터 모두 이 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흡연자는 정상유전자를 가진 흡연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평균 80% 높고 담배를 하루 평균 2개비 더 피우며 담배끊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3개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거의 일치했으나 다만 아모스 박사와 브레넌 박사는 이 변이유전자가 흡연에 의해 활성화되면 종양성장을 자극해 직접 폐암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반면 스테판손 박사는 변이유전자가 흡연량을 증가시키고 담배끊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국 폐암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서 변이유전자와 폐암은 간접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